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5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재판관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졸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시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시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1) 내가 살아가면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한 행동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 2) 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3) 나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로 얘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지혜를 얻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함께 물속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붙잡아 물 속에 밀어 넣었다. 젊은이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있는 힘껏 그의 머리를 붙잡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던 젊은이는 간신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바로 그 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을 때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공기였어요!” 이 말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지혜를 원한다면 얻게 될 걸세!”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0번 ‘구하시오 받으리라’를 부릅시다.

궁
금
했
어
요

‘묵주’ (默珠)란 말의 의미

주님 현존 느끼며 성모님과 ‘구원’ 묵상
묵주기도는 성경 묵상의 가장 탁월한 도구
복음 요약한 각 신비들을 기억하며 바쳐야

로사리오의 공식 한국말 번역은 묵주다. 묵주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 ‘묵주’ (默珠)란 말의 의미를 풀이해 본다.

묵(默)이란 글자는 선비가 글을 쓰기 위해 먹(墨)을 갈면서 개(犬)를 바라보는 형상이다. 개는 인간과 달리 현재의 것만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반면 글을 아는 선비는 글을 통해 과거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현재를 기록하는 역사적 활동을 하며 미래를 희망하고 예측한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하고 판단하고 희망하는 능력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유일한 능력임을 드러내는 단어다.



‘묵(默)’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기억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에도 재현되는 힘을 가지며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동양적 표현을 통해 담고 있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묵주기도는 성경을 묵상(默想)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이자 관상(觀相)의 학교”라고 표현하셨다. 우리가 묵주라는 명칭을 대할 때마다 묵주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복(福)이 나오는 자판기’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하며 희망을 얻는 발판으로 삼을 때 이러한 선조들이 만든 호칭에 걸맞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묵주기도를 할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묵주를 소유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사건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더 묵주라는 명칭에 맞는 자세라 하겠다. 이렇듯 묵주라는 명칭에는 우리 신앙선조들의 뛰어난 전례정신이 녹아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령본당 칠곡소공동체-

“잘 오드만 오늘따라 와 이리 늦노? 참말로!!” 시계가 7시를 넘어섰는데도 몇몇 얼굴들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지신 모양입니다. “여기는 촌이라 사람들이 시계를 안 보고 해를 보고 움직입니다. 해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리 늦어지네요.” 작은 방 가득 정겨운 얼굴들이 가득한 이곳은 의령본당 칠곡소공동체. 시골 공소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기에 마음은 기대감으로 살짝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령본당 칠곡소공동체는 칠곡공소 신자 분들의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을 방문하여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본당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주일미사는 본당에서 하신다지요. 본당에서는 남녀 각각 4분씩, 총 여덟 분의 신자 분들이 차량운행 봉사를 해주시는데, 그 덕분으로 어렵지 않게 본당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하시며 본당과 봉사자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이어진 돌아온 아들에 관한 복음말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는, 한없이 자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는 나눔이 많았습니다. 부모된 심정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그렇듯 한없이 자비롭기란 또 얼마나 어

려운 것인지 새삼스레 깨달으시는 듯했지요.

시골인지라 반원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가운데 젊은 한 자매님이 유달리 눈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

셨다는 의령본당 사무장님이셨습니다. 몇 해 전 이곳으로 오셨다는 요한 형제님도 계셨는데 귀농 후 나무심기, 잔디 깔기 등 집안의 여러 일들에 반원들이 모두 제 일처럼 거들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다지요.

일 년에 단 한 명에게라도 선교하는 것을 활동지침으로 삼고 계신 칠곡 소공동체에서는 작년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공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모임에도 예비자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어색함 없이 자연스레 어울리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마 칠곡식구들만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촬영을 앞두고 그날 특별히 참석하신 본당회장님과 구역분과장님께서 사진 찍기를 마다하시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어서 이리 오이소!” “우리가 다 한 식구지예!” 하는 소리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칠곡소공동체 식구들은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하느님의 자비를 이미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것을 엿볼 수 있었지요.

시계보다 해를 보고 시간을 가늠하신다는 이곳 분들. 늘 하늘을 올려다 보고 살아가시기에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 나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께 좋은 자리 내어 주시며 몸소 다른 곳으로 옮겨 앉으시던 사려 깊음, 병환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반원들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던 세심함이 오래된 공소의 낮은 담 너머로 조금씩, 천천히 흘러넘쳐 세상 저 먼 곳까지 하느님의 자비로 물들여갈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칠곡소공동체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